

“만덕초 학교생활·만학도 꿈” 학생·교원 작가책 출간

전남교육청, ‘저자 되기 프로젝트’ 18편 출간기념회 개최 ‘학생(교원) 저자되기 프로젝트’ 결과물 공유 자리 마련

“책 ‘만덕이네 학교생활’은 올 한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전교생이 31명인 작은학교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시선을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20일 순천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열린 전남남도교육청 ‘2023 학생(교원) 저자되기 프로젝트 출간기념회’에 참여한 강민주(만덕초 4학년) 학생은 이처럼 자신의 책을 소개했다.

이날 출간기념회는 전남교육청이 지난 9월 1일부터 진행한 ‘학생(교원) 저자되기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학생 작가들을 비롯해 작가 지망 학생, 가족, 교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저자되기 프로젝트는 책 주제 선정부터 표지의 디자인까지, 학생 및 교원들이 참여했으며, 약 3개월 간의 초고와 최종 작업을 거쳐 이날 첫 독자들을 만났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만덕이네 학교생활’을 비롯해 ‘우리반에 인공지능이 전학왔어요(교사 김한결)’, ‘정설아 넌 겨울잠 안자니?(교사 박미선, 그림 이상미)’, ‘카툰으로 보는 사자 성어(교장 임오숙)’ 등 전남 학생·교원들이 쓴 책 시, 소설, 그림책 등 18편이다.

이날 기념회에서는 작가가 직접 자신의 책을 소개하는 ‘제 책을 소개합니다’가 진행됐

고, 이어 책 출간 뒷이야기를 나누는 ‘작가와 의 대화’, 책 나눔 등의 알찬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목포중앙여중 방송통신부설중에 다니는 만학도 김동임 할머니(75세) 외 6명이 펴낸 시집 ‘꿈 꾸는 세잎 클로버’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시집에는 배움을 향한 가슴 속 응어리와 한이 진솔하게 담겨있어 독자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기념회에 참석한 이재신 토지초 교사는 “작가를 꿈꾸는 학생과 교원들에게 책 출간의 경험을 제공하고 전남교육 현장을 글로 기록했다는 게 의미있다.”며 “글을 쓰고 출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포기하지 않고 해내신 분들이 대단하다.”고 응원을 전했다.

박준 미래교육과장은 “우리 전남은 태백산맥의 조정래, 당신들의 천국 이철준, 육종일



기 김대중 등 작가의 DNA가 흐르는 곳이다.”며 “생각을 글로 피우는 독서인문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교원들이 작가를 꿈꿀 수 있도록

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면기자



고흥 점암초, 희망오케스트라 종강 연주회

고흥점암초등학교(교장 이효경)는 지난 24일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희망오케스트라의 종강 연주회를 끝으로 2023년의 방학후 오케스트라 연습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암초등학교는 학교 특색활동으로 ‘점암희망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맡은 한 개의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고 나아가 꿈과 끼를 찾아가는 기회를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외부 공연이 어려웠지만, 올해에는 고흥읍의 청소년 문화의 집 광장의 넓은 공간에서 점암초등학교 홍보 연주회를 시작으로 총 5회의 연주회를 가졌다.

고흥군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초청공연과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초청 공연에서는 고흥지역을 대표하여 동요 행진곡, 캐리비안 해적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버터 등을 연주하며 학생들의 솜씨를 보여주었다. 또한, 고흥지역의 작은학교 홍보의 날 초청공연, 고흥교육 대토

론회 초청공연으로 여러 무대에서 다양한 연주곡을 선보이며 학생들의 재능을 발휘하였다.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았던 색소폰 연주자 윤주승은 “이렇게 작은 학교에서 소인수의 학생들로 오케스트라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학생들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점암희망오케스트라를 멋지게 꾸려 나가겠다. 그리고 점암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배운 악기들이 평생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가르침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이효경 교장은 “학교 안에서 배운 재능을 다양한 기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로 표현력을 기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기를 바란다. 여러 차례 교내 및 외부 공연으로 오케스트라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2024년에도 점암초 학생들이 음악을 즐기고 생활화 하는 모습을 보고싶다”고 하였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여중, 전교생 자화상으로 완성한 ‘민주시민 학교’

팝아트 기법 활용한 380명의 개성 있는 자화상, 한 자리에 모여 ‘눈길’

광양여자중학교(교장 전형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의 자아 성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교생 380명이 직접 그린 자화상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해 ‘눈길’을 꾸몄다.

광양여중은 지난 26일부터 본관 1층 중앙 복도에서 ‘나다음이 모여 우리다음으로’를 주제로 한 전교생 자화상 특별 전시전을 열었다. 내년 1월 5일까지 전시될 자화상들은 민주시민학교 운영과제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학교측은 밝혔다.

전교생들이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표현해 전시하는 활동이 자아 성찰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해 미술 수업을 활용해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개성이 드러나는 색깔을 찾아 자화상 계획서를 작성한 후, 팝아트 기법을 응용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내면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남교육청 지정 민주시민학교로 운영 중인 광양여중은 학생들의 주인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해, 교실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민성 교육을 펼쳐왔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번 자화상 프로젝트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학생자치’, ‘학생주도 스포츠 문화활동’, ‘뒤돌 문화공간 재생’에



이러, 네 번째 민주시민학교 프로젝트로서, 한 해 동안 성장한 자기 모습을 스스로 표현한 민주시민교육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전남교육청, 2024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설계·운영 지원

도내 초등학교 대상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등 연수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도내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 설계 지원자료 3종 책자를 제공하고 활용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19일과 21일, 22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서 권역별로 실시했으며 초등 교육과정 담당

교원 및 교육지원청 전문직원 6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전라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맞춰 학교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 3종을 제공하고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1~2학년 수업

시수 편성·운영과 학교교육과정 설계를 중심으로 연수가 이뤄졌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교사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관련 자료가 향후 학교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되었던 연수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해주어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경감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